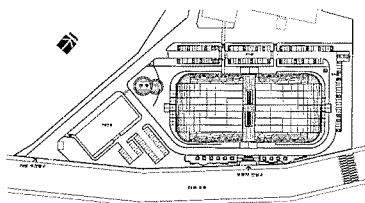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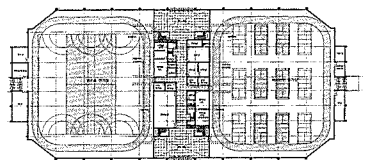
- 국제경기가 없는 평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 주위에 트랙을 설치하여 조깅코스를 마련하였다.
- Security Door를 사용하여 관리의 효율을 더한다

단면계획

- 핸드볼과 배드민턴 경기에 필요한 높이와 규모를 감안하여 경제적이고도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높이를 설정하였다.
- 소요실 증가로 늘어난 연면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연 채광의 유입 등 풍부한 표정을 가진 공간을 연출하였다.
- 중앙에 공용시설 배치로 자연스럽게 각 경기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 하였다.
- 홀 부분을 오픈시켜 기능 및 공간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층을 경기자가 이용하고, 2층을 관람객이 사용함으로써 동선분리 및 자연채광의 유입으로 쾌적성을 추구하였다.
- 관람석의 수직적 배치로 동선을 짧게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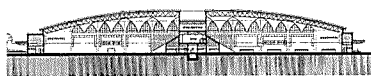
배지도



1층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계획작품 process works

동양생명 울산금융센터

잠실175빌딩

D&S 문화센터

성동구립 행운어린이집

동양생명 울산금융 센터

Dongyang Life Insurance Bldg.

김병현 · 오택길 / 장건축



모형도

위 치 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1248-5번지 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설계지구, 일부 2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1,219.4㎡
건축면적	702.58㎡
연 면 적	9,819.29㎡
건 폐 율	57.62%
용 적 륜	558.96%
규 모	지하3층, 지상10층, 옥탑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설비	F.C.U+A.H.U
주요용도	일반 업무시설(사무실)
외부마감	THK24mm 저반사 복층유리+화강석
주차대수	91대
설계담당	박근우, 고성천, 김성우, 정기훈, 김상나, 이정임
건 축 주	동양생명보험(주)
설계기간	1996. 8~1996. 12

동양생명 울산금융센터는 울산 신시가지의 중심도로격인 50m폭의 산산로를 북측에 두고 동측에는 8m도로, 남측에는 12m도로에 접해있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으며, 주변상황은 새로운 도시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신개발계획지역이다.

따라서 현란한 외관을 이용한 개별성의 강조보다는 단순한 형태구성을 통해 새롭게 형성될 도시가로 아래서 증성적 성격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진행중 건축주가 주오마감재료를 돌로 요구해와 돌로 마감된 솔리드한 피막을 서측과 동측에 두고 그 두 피막사이에 보이드한 유리매스를 삽입해 정면과 배면에서 개방성이 확보된 매스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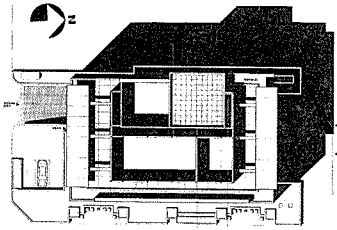
그리고 대지가 접해있는 위계차이에 대한 대응은 도시적 스케일의 분절되지 않은 면과 휴먼스케일의 분절된 면이라는 건축적 표현으로 접근하였다.

여러면에서 개성의 강조와 화려한 자기표현을 통한 차별성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의 극단은 결국 모두가 동질화 되는 것으로 이르고 말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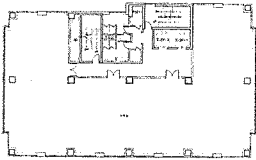
중성화 된다는 것.
 주변의 배경이 되어주고 도시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그것 또한 건축이 가져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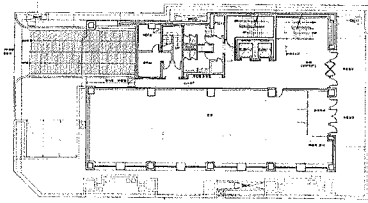
의미가 아닌가 한다.<글 : 장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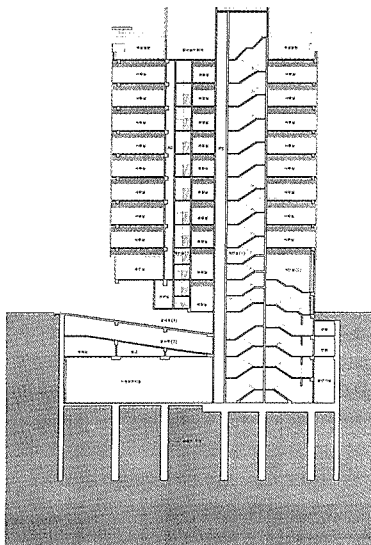
배치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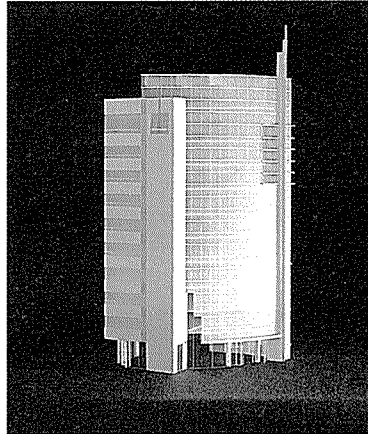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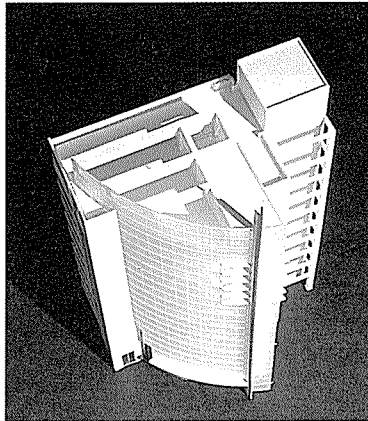
잠실175빌딩

Jamsil 175 Building

주영정 / 예조건축



CAD 모델링 1



CAD 모델링 2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75-9, 2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717.60㎡
건축면적	425.51㎡
연 면 적	4,667.96㎡
건 폐 율	59.30%
용 적 륜	509.92%
규 모	지하2층, 지상10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43.90m
층 고	3.6m
주요설비	중앙 냉 · 난방식
주요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지정 THK30 화강석, 지정

THK18 컬러복층유리

내부마감 천정/암면흡음텍스, 벽/지정색 인코트스프레이, 바닥/디럭스

타일

주차대수 48대

조경면적 114.10㎡

설계담당 김귀현, 송문호, 소병권

설계기간 96. 09~97. 01

계획을 하다보면 문득 떠오르는 내면의 질문(상업주의의 일상적이고도 보편적인 대중으로부터 건축물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일인가 하는...)에 나름대로의 가식적인 대답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나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더욱 더 많은 지성과 건축적인 깨우침의 새벽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곤 한다. 대지는 재개발 논의가 한창인 잠실 주공아파트 1단지를 끼고 있는 올림픽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획일적이고도 단순한 회색의 APT단지과 신천역 주변의 소비문화의 끝자락의 모퉁이에 펼쳐지게 될 잠실 175빌딩은 거리를 오고 가는 이들의 무심한 시선에 뚜렷한 이미지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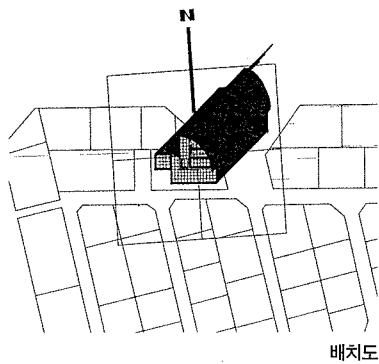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후면 도로를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대지의 후면 서측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보차동선을 유도하였다. 서측에 Core를 집중시켜 부정형의 대지에 정형의 업무공간과 충분한 Space를 확보하였다.

건물의 표현양식은 건물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외관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Mass는 대지의 형태에 따른 정형적인 입방체에 원형의 피막을 결합하여 모퉁이 대지로서의 시각적인 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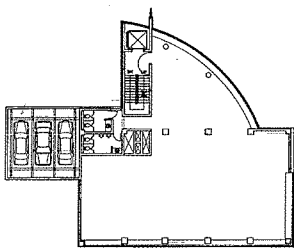
전체적인 입면은 밝은 회색의 자연적으로 치장된 정방형의 수직적인 볼륨, 도로를 따라 도는 Glass Skin 등 크게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정방형의 수직적 볼륨은 재료, Mass의 단절과 결합을 야기시키고 호를 그리는 Glass Skin은 태양광선의 이동에 따른 빛의 반사와 흡수, 굴곡은 Skin위에서 다양한 건물의 표정을 연출할 것이다. 피막을 가르고 치

솟는 Tower와 상층부의 Set Back된 입면의 금속Frame은 분절과 변화를 시도하여 시각적 효과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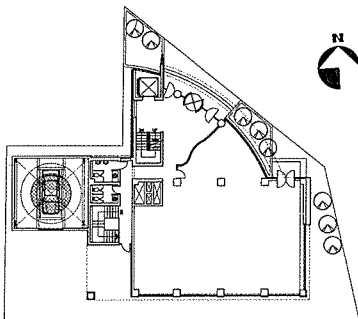
안정된 정방형 형태의 사용은 다이내믹한 반원의 호와 대조를 이루나 일반적인 재료(돌, 유리, 금속 등)들의 범위내에서 추구되는 형태로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건축적인 표현수단으로 작용한다. 회색의 Apt군으로 둘러싸인 복잡한 도시의 한켠에 가로지르듯 뚫을 수 있는 신선한 매개체(보다 건축적인 건축물로 대중에게 인식되는)로 생성되길 바란다. <글 : 주영정>



배치도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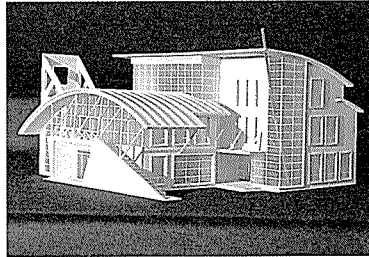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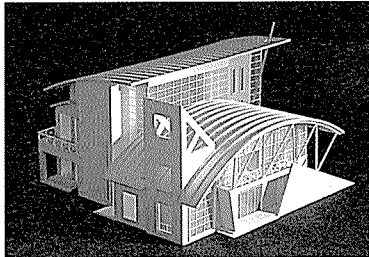
D & S 문화센터

David & Solomon Culture Center

주영정 / 예조건축



모형도 1



모형도 2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90
지역지구	전용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937.80㎡
건축면적	403.32㎡
연 면 적	1,063.27㎡
건 폐 율	43.00%
용 적 륜	87.57%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1.90m
주요설비	중앙 난방식+개별 패키지 방식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THK30 인도사암, 하디사이딩 패널
내부마감	천정/Str'nstl Mesh 벽/본타일, 바닥/화강석물갈기
주차대수	10대
조경면적	46.89㎡
설계담당	김광진, 정미숙
건축주	김재홍
설계기간	96. 10~97. 01

이 계획안의 대지는 일산구청과 국립 암 센터를 사이에 두고 주택군(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한 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20m 전면 도로와 8m 소방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자리한 대지는 근린생활 용지로 규제된 블록으로 아직도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는 비교적 잘 정비된 곳이다.

대지는 도시설계에 의해 규제된 3m건축 지정선으로 인해 건물이 후퇴되었으며 주차동선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출입구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건물과 주차공간이 분할되었고 주차공간과 인동선의 상호 심리적 인지를 위해 단차를 두어 공간을 구획하였다. 또한 동측면의 주 출입공간과 주차장 부지 사이의 잉여공간을 이용, 녹지를 조성하였고, 상징적 시계탑에 의해 이 대지의 영역성을 확보하였으며, 바닥 패턴은 원의 파장을 형상화하여 2층으로 직접 인입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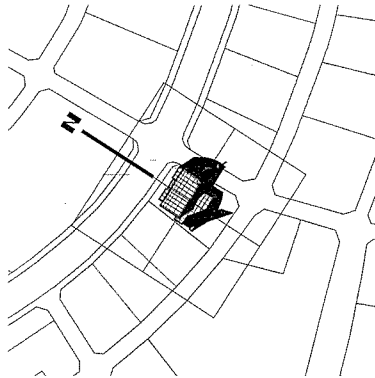
두개의 곡선이 서로 교차하여 높낮이를 달리한 지붕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시각적 무게중심의 보정을 더해주고, 커튼월로 이어지는 수직의 투명성으로의 연계를 잘 수용해 주고 있다.

건물의 안정감을 더하기 위해 삼각형의 외부계단을 두었고, 그 사이를 구조체의 노출로 입면의 다양성을 부여 또 하나의 작은 공간을 형성케 하였다. 건물의 시각성을 위해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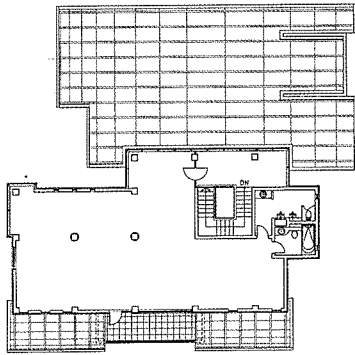
측면의 겹 지붕과 축벽의 창들도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패턴으로 전체적인 입면의 균형을 이루어 주고 있다.

평면은 4.0m×4.0m 기본 모듈로 건물의 중앙에 Core를 두어 기능상의 간결성에 중점을 두었고, 외부에서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각 공간으로의 서비스 출입구를 계획, 이용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였다. 지하층은 소극장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세미나, 토론회, 바자회 등을 겸할 수 있는 Community Space로 활용, 1층의 카페와 레스토랑은 쉼터로서의 공간을, 2, 3층의 서점, 의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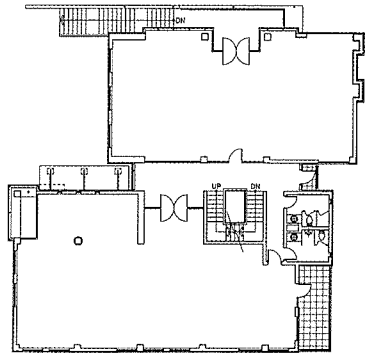
익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의 장으로 계획되었다. <글 : 주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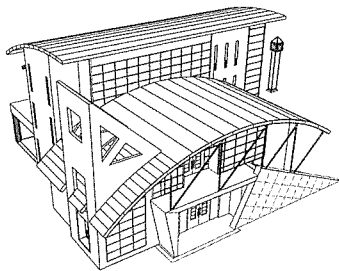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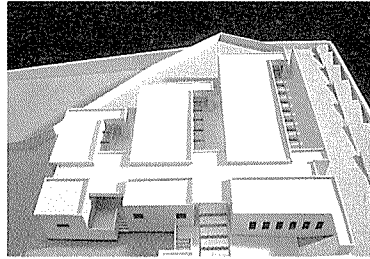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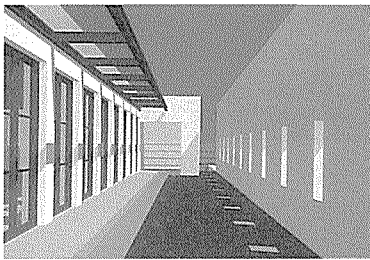
성동구립 행은어린이의 집

Haengeung House for Children
in Seongdong-gu

김인철 / 아크키움



모형



벽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로와 마주하는 첫번째 마당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행은동 341-45의 2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573㎡
연면적	414.45㎡
건축면적	317.25㎡
건폐율	26.40%
용적률	30.78%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4.05m
층고	2.7m
주요설비	패널히팅
주요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드라이비트(50mm 단열재)
주차대수	3대
조경면적	264.59㎡
설계담당	박병욱, 양만직
모형	이종길

왕십리에서 성수대교로 이어지는 고산자로와 독서당길이 만나는 언덕길에서 오른쪽 산비탈을 따라 오르면 아직도 옛 모

습이 남아 있는 달동네가 있다. 이단기어로도 숨이차는 산자락길은 정점에 오르자마자 북동쪽으로 시야가 트이며 다시 가파른 비탈이 되어 시가지로 쏟아져 내린다. 잠목들에 지나지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숲이 남아있는 언덕밭이 언저리에 어린이의 집을 위한 대지가 마련되어 있다. 전부터 행은동 어린이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낡은 건물을 치워내고 새집을 짓도록 성동구에서 계획을 마련하였다. 구에 등록된 설계자가 돌아가며 맡는 소규모 시설이지만 우연히도 재미있는 프로젝트에 차레가 왔다. 혈어내야할 옛집은 기능에만 충실한 채 한덩어리로 뭉쳐진 공간을 움켜쥐고 있는 완고한 모습이였다. 탁아소부터 유치원까지를 겸하는 자질한 기능들이 뒤범벅되어 웅색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짧고 단순한 동선, 낭비없는 공간활용의 정신에 충실한 나머지 아이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마치 소도구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최근에 손질된 이층 건물만 남기고 모두 비워지면 그래도 상당한 대지의 여유가 있을 공간이였다. 놀이기구를 운동장으로 옮기고 경사진 도로의 아래쪽에 주차장을 놓아 가능한 넓게 건축이 자리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단층으로도 충분한 규모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뒤 요구되는 기능들을 하나씩 떼어놓는 것으로 생각을 시작하였다. 길게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공간은 사이 사이가 비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반복으로 하나이기도 하고 너댓개이기도 한 건축을 만들었다. 있음과 없음의 되풀이는 안과 밖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결국 안도 아니며 밖도 아닌 공간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안과 밖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굳이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딘가를 막기만 하면 된다. 규정된 형식이 있는것이 아니므로 그것들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줄어들 수도 있다. 형식이 없으므로 형태도 없다. 입면이라 그려진 것은 구획에 지나지 않으며 평면이라 정해진 것 역시 영역의 설정일 뿐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가변성이라 말해지는 것보다 투명성의 의미를 생각한 것이다. <글 : 김인철>